

긴 공백은 독...선행정보다 추입형 더 치명적

강진남, 10주 만에 컴백 기대 못미쳐 스타급 선수들 복귀전 부진 잇따라 공백 길수록 운영 중심 추입형 고전

경륜선수는 컨디션에 이상이 없거나 제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2~3주 간격으로 경기에 나선다.

이 정도 간격이 훈련 스케줄에 따라 몸만들기에 용이하고 경기감각도 유지해 좋은 성적을 내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수 대부분은 “3주 이상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는 훈련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를 증명하듯 공백이 길거나 연속 출전하는 선수들은 훈련강도를 높이기 어렵고 컨디션 조절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강진남(18기, S1)은 평소 연대세력을 가장 먼저 챙길 정도로 기세와 실력을 모두 갖춘 선수이다. 그런데 6월9일 낙차 부상으로 10주라는 공백을 겪었다. 그는 복귀 후 첫 경주였던 광명 32차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첫날인 17일 15경주에서 인기순위 2위로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4위에 그쳤고, 다음날 13경주 역시 5위로 밀려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강자들이 대거 빠진 일요일 경주에서는 우승이 점쳐졌으나 생각지도 못한 공민우(11기, S2)에게 1착을 내주며 2위를 기록했다. 강진남은 10주 만



낙차 등으로 6주 이상 공백기를 보낸 추입형 경륜선수들이 복귀전에서 경기감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의 출전으로 경기 감각과 선수 파악 부족으로 이번의 발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밖에 긴 공백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던 선수는 송승현(17주), 이재일(6주), 공동식(7주), 김문용(8주), 주석진(6주) 등이 있다. 주석진(20기, A1)은 낙차로 6주 만에 출전했다. 가벼운 찰과상이어서 부상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그 만큼 기대치도 높고 매 경주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며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복귀 직후인 광명 30회차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하고 3위-4위-3위만 기록하는 이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후 부산 28회차 19일 9경주와 광명 33회차 25일 11경주에서 1착하며 경기감각을 차츰 찾아가고 있다. 공동식(12기, B1), 김문용(14기, B1) 등도 강급자로 기대치가 높은 선수였지만 역시 공백 이후 첫 경주에서 줄줄이 무너지고 말았다.

공백기 이후 복귀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추입형이다. 자력형 선수의 경우, 선행 타이밍만 잡으면 경주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

다. 하지만 추입형은 운영으로 경주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 선수를 마크하지 못하거나 외선에서 다른 선수와 병주할 경우 공백 후유증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마지막 한 바퀴’ 장학순 씨는 “추입형에 경기 공백이 길었던 선수는 상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2, 3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선수들이 출전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국민체육진흥공단, 동양대에 장학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24일 동양대학교에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사진)에는 경륜경정사업본부 김광식 단장과 동양대 김태운 부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경륜경정사업본부와 동양대는 2016년 8월 MOU를 맺고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비경쟁 자전거행사 ‘백두대간 그란폰도’의 성공 개최와 동양대의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에 협력하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베팅 가이드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26일부터 스포돔 2층 고객라운지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베팅가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경륜 베팅가이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3시43분(1차), 14시13분(2차)에 각각 10분씩 ‘경륜왕’ 설경식 씨와 김영호 훈련지도관이, 경정 베팅가이드는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20분 동안 관람동 1층 고객식당 앞에서 ‘경정고수’ 이서범 씨가 함께한다. 그날의 경주별 전략분석과 경주 결과를 예상하고 경주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 받아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일·한준희·김지영, 차세대 미사리 스타 줌!

경정 15기 7주간 신인경주서 두각

7월에 데뷔한 경정 15기 신인선수들이 28회차부터 34회차까지 7주간의 신인경주로 담금질을 마쳤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신인선수들의 미사리 분장 실전경험 향상과 빠른 수면 적응을 위해 매년 신인경주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15기 신인들은 16명으로 남자 12명(구남우, 김경일, 김태영, 송효범, 신선길, 엄광호, 윤상선, 이인, 정세혁, 정승호, 조승민, 한준희)과 여자 4명(김지영, 김재현, 박민영, 한우

형)이다.

7주간의 신인경주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김경일과 한준희를 꼽을 수 있다. 졸업경주 우승자 김경일은 8회 출전해 1착 3회, 2착 3회, 3착 2회를 기록하며 신인경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8전4승을 기록한 한준희의 활약도 돋보인다. 4회 우승 중 3승을 휘감기, 나머지 1승을 인빠지기로 올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스타트를 동반한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해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3승을 기록한 조승민을 비롯해 엄광호, 윤상선, 김태영이 2승을 거뒀다. 정세혁과 정승호도 한차례씩



김경일 한준희 김지영

우승을 경험했다.

여자선수 중에서는 김지영이 주목을 받았다. 8회 출전해 우승 2회, 2착 4회, 3착 1회를 기록했고, 한 차례만 착순권 밖으로 밀려났다. 큰 기록 없이 0.2초대의 스타트 감각을 유지하는 점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로 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 높게 평가받는다. 다만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경주를 종종 놓친다는 점은 나중에 경험으로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박민영, 송효범, 한우형, 김재현 등은 우승경험을 맛보진 못했지만 신인경주에서의 경기 경험을 발판삼아 실력을 정비한다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전력으로 파악된다.

경정 전문가들은 “동기들과 겨루는 신인경주와 선배선수들과 함께 편성되는 혼합경주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다. 신인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높은 긴장을 느끼게 된다. 후보생부터 담금질해온 스타트와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아시안게임 ‘예측의 신’은 나야 나!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col)을 통해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예측의 신(神)’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의 대상경기는 29일에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여자배구 8강 대한민국-인도네시아전이며,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리한다’, ‘양팀 득점 합이 180점을 넘는다’, ‘김연경 선수가 25득점 이상 기록한다’의 총 3가지 O,X 퀴즈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8강전은 2014인천 대회 금메달에 이어 AG 2연패를 노리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조별 예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치르는 본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G에서 여자 배구 한국 대표팀은 4승 1패로 예선전을 통과하는 등 순항하고 있지만, A조 3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안방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점수 차이를 맞히는 문제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3번 퀴즈의 주인공인 ‘배구여제’ 김연경의 경우 지난 25일 베트남과의 B조 예선 4차전에서 21점을 기록하고, 27일 조별리그 최종전인 대만과의 경기에서 3세트에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 최다인 13점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공격 능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컨디션을 확실히 점검한다면 퀴즈의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측의 신’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방문 후, 이번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자신의 예측을 답글로 달면 된다. 주어진 3가지의 O,X 퀴즈를 정확하게 예측한 3명의 스포츠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이번 예측의 신 이벤트와 관련해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AG를 맞아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를 선정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예측의 신 이외에도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스포츠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골프팬 69% “오지현 언더파 활약”

골프토토 스페셜 24회차 중간 집계

국내 골프팬들은 ‘KLPGA 한화 클래식 2018’ 1라운드에서 오지현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30일(목)에 제이드펠리스CC에서 열리는 ‘KLPGA 한화 클래식 2018’을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24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68.52%가 1번 선수 오지현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2번 최혜진이 60.46%로 뒤를 이었고, 3번 장하나가 정확히 50.00%의 언더파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44.20%에 그친 5번 이소영을 비롯해, 김아림(42.31%)과 조정민(41.34%), 이다연(38.37%)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는 최혜진(30.93%)과 오지현(30.51%), 장하나(24.77%), 이소영(24.37%)이 모두 1~2언더파를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이다연(23.67%)을 비롯해 김아림(22.87%)과



조정민(21.53%)은 모두 3오버 이상이 1순위를 차지했다.

이번 골프토토 스페셜 24회차 게임은 29일 오후 9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한다.

K리그 6경기·EPL 8경기 대상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게임을 발매한다.

이번 회차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벳맨(www.betman.c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발매 마감은 9월 1일 오후 7시20분이다.

K리그1에서는 1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상주상무-전남(1경기)을 비롯해, 강원-서울(2경기), 포항-제주(8경기), 인천-울산(9경기), 경남-전북(10경기), 대구-수원(11경기)전이 대상경기에 지정됐다.

EPL에서는 리버풀-레스터전(3경기)을 시작으로, 카디프-아스널(12경기), 번리-맨체스터유나이티드(13경기), 왓포드-토트넘(14경기)전 등 리그 강호들의 경기가 대거 포함됐다.

편집 | 곽정화 기자 ico@donga.com